

韓, 내달 WGBI 편입... 500억~600억달러 자금유입 전망

(세계국채지수)

8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포함 국채금리·환율안정 효과 기대 자금유입 규모 '선반영' 변수

한국이 4월부터 세계국채지수(WGBI, World Government Bond Index)에 편입된다. 한국 국채의 몸값을 높이고, 외국인 자금을 대규모로 끌어들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대규모 자금이 단계적으로 유입되면 환율과 금리 안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증권가에 따르면 WGBI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분류하는 글로벌 국채 지수로, 주요 연기금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벤치마크로 활용한다. 한국은 이번 편입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에 걸쳐 지수에 단계적으로 포함된다. 지수 내 비중은 2% 내외로 예상된다.

WGBI에 이름을 올리는 건 한국 국채가 글로벌 국채 시장에서 안정적인 채권으로 인정받는 의미다. 따라서 선진국 자금 유입, 국채 조달 비용 경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올해 225조7000억 원 규모의 국고채 발행 압력이 수급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물량을 일정 부분 흡수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편입으로 최소 500억달러 이상, 많게는 600억달러를 웃도는 패시브 자금이 국채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어 있다. /뉴시스

증권가에 따르면 다음투자증권은 지난 27일 리포트에서 WGBI 편입으로 약 520억~624억달러 수준의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원·달러 환율 1500원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하면 78조원~93조원 수준이다.

◆ 채권시장 안정기대

해외 자금이 대거 유입되면서 국채 수요가 늘어나면, 시장 금리가 낮아지면서 기업의 회사채 금리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까지 광범위한 금리가 떨어질 수 있다. 금융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WGBI 편입으로 500억~600억달러의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면 국채 금리가 0.2~0.6%포인트 낮아지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

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1~2차례 내리는 효과가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연간 최대 1조1000억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고채 금리는 중동 전쟁 이후 국제유가 방향성을 그대로 따라가며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지난 23일 3.617%를 기록하면서 연중 고점을 찍었다. 이는 전쟁 발발 직전인 지난달 27일 3.041%에 비해 57.6bp(1bp=0.01%포인트)나 오른 것이다.

국채 금리를 기준으로 가산금리를 붙이는 회사채나 은행채 금리가 동반으로 낮아지는 효과도 있다.

김찬희·고다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지수 추종 자금 유입 자체로 금리 방향성을 좌우할 수는 없겠지만 2~3분기 중 20~30bp의 금리 안정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고 봤다.

자금 유입이 어느 정도 '선반영' 됐지는 변수다. WGBI 실편입 전에 선제적으로 자금이 유입됐던 사례로 비춰볼 때 추종 자금이 상당 부분 선유입됐을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그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견해도 존재한다.

이성경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작년 139조6000억원 외국인 순매수로 2024년 63조5000억원 대비 76조원의 추가 매수가 있었고, 만기 상환을 제외한 순투자 규모로는 45조9000억원 순증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이미 상당 수준 선행 매수로 간주하고 추가 유입 규모를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하지 않나 판단한다"고 전했다.

◆ 원화 가치 올리는 효과

WGBI에 따라 자금을 배분하는 외국 자금이 대거 국내 채권시장으로 유입되면 달러를 원화로 바꾸려는 수요가 늘어 달러 대비 원화 환율도 하락(원화 강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환 시장 한 관계자는 "우리 국채가 선진국 수준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고, 외환시장도 안정화하는 효과 역시 기대된다"고 했다.

원·달러 환율은 중동 전쟁과 외국인

주식 매도 영향으로 1500원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WGBI 편입으로 외국인 투자 자금이 국내 채권 시장에 유입된다면 추경 편성이나 추가적인 국채 발행에도 불구하고 국채 매입으로 연결될 수 있어서 국채 금리 안정과 환율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자금 유입이 수개월에 걸쳐 분산되는 만큼 단기적인 환율 하락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LS증권은 최근 리포트에서 일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최근 국내외 금리 상승은 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 확대와 이로 인한 정책금리 인상 기대가 높아진 데 기인했다"며 "WGBI 편입 직후 즉각적인 금리의 급락이나 원화의 강세 전환은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향후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완화되고 연내 금리 인상 기대감이 후퇴한다면 WGBI 편입 영향이 점진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편입에 맞춰 외국인 자금 유입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상시 점검반'을 가동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점검반에는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탁결제원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한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상장사 감사의견 거절 '속출'... STX 등 무더기 퇴출 위기

거래소 29개사 상폐사유 발생 34개사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결산 시즌을 맞아 감사의견 거절과 보고서 제출 지연이 잇따르면서 증시 퇴출 위기에 몰린 상장사들이 속출하고 있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2025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외부감사인의 검토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모두 29개사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이스타코, KC그린홀딩스, STX, 대호에이엘, 금양, 윌비스, 한스퍼레이션 등 7개사가 퇴출 대상 명단에 들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알에프세미, 옵티코어, 엔지켐생명과학, 메디코스, 투비



한국거래소.

소프트 등 22개 기업이 '의견거절'을 받았다.

의견거절은 외부감사인이 감사 대상 기업 재무제표에 대해 낼 수 있는 4가지 의견(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 가운데

최하 단계다.

회계법인이 감사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돼 판단이 불가능하거나 회계기준을 위반한 기업 또는 기업이 계속 운영될 수 있을지 불확실한 경우에 내려진다.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감사의견으로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한정을, 코스피 기업은 부적정·의견거절을 받으면 즉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이들 기업은 상장폐지 관련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영업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

감사보고서를 아직 내지 못한 34개사도 주주의 대상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을 넘기고도 감사보고서를 내지 못한 기업은 코스피 7곳,

코스닥 27곳에 달했다.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은 주주총회 개최일 1주일 전이다.

기업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DH오토네스, KC코트렐, 광명전기, 이엔플러스, 인스코비, 진원생명과학, 한창 등 7개사가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아이티켄, 글로벌, 셀루메드, 스코넥, 알파AI 등 27개사가 보고서 지연을 공시한 상태다.

이들 기업이 올해 사업보고서 마감일인 오는 31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10일 내에도 미제출 시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신하은 기자 godhe@

삼성증권 RIA 계좌개설 이벤트

삼성증권이 국내증시 복귀계좌(RIA) 최초 개설한 국내거주 내국인 대상으로 'RIA 계좌개설 이벤트'를 5월 말까지 진행한다

먼저 RIA 계좌개설만 해도 커피쿠폰 1장을 선착순 2만명에게 지급한다. 다음으로는 RIA 계좌개설 선착순 2만명 고객 중 ▲2025년 12월 23일 기준 보유 해외주식 100만원 이상 RIA 계좌 입고 ▲2026년 5월 29일까지 RIA 계좌 100만원 이상 잔고 유지 시 국내투자지원금 1만 원을 지급한다.

투자지원금은 6월내 지급 예정이며, 사용 기한은 이벤트 신청일을 포함하여 5영업일까지이다.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6영업일 오전에 자동으로 회수된다.

/신하은 기자

종가 기준 반대매매 결정... 종목 변경 등 방어전략 중요

금감원 Q&A

반대매매 유의 사항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신용융자를 이용한 투자자의 반대매매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주요 분쟁 사례를 바탕으로 투자자가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먼저 반대매매는 사전 통지 없이 이뤄

지는 것이 아니라, 신용거래 약정 체결 시 고객이 지정한 방법(유선, 문자, 알림톡, 이메일 등)을 통해 담보부족금액 추가 납입 요청이 이뤄집니다. 다만 해당 안내를 차단하거나 확인하지 못할 경우 기한 내 대응하지 못해 반대매매가 실행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매매 시 예상보다 많은 수량이 매도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증권사는 전일 종가 등 기준가격에서 일정 비율(약 15~30%) 할인된 가격

을 적용해 매도 수량을 산정하기 때문에, 담보 부족 규모와 관계없이 보유 물량 전체가 매도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담보비율은 장중이 아닌 장 마감 후 확정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장중에는 주가 변동에 따라 담보비율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실제 반대매매 여부는 종가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금감원은 반대매매를 손실의 원인으로 보기보다, 이미 발생한 손실을 확정

하는 절차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대매매 이후 주가가 반등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사후적인 결과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투자자는 반대매매 실행 전 일정 시간 내에 종목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특정 종목의 강제 매도를 일부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주식 투자 시에는 담보비율이 급격히 하락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일부 해외주식은 가격제한폭이 없어 보수적으로 담보가치가 산정되기 때문에, 동일 계좌 내에서 담보비율이 빠르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허정윤 기자

KB증권 '연금마스터' 제도 운영

KB증권은 고객이 연금을 더욱 쉽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연금마스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연금마스터'는 연금 제도와 상품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고객 상담 및 관리 역량이 검증된 직원들로 구성된다. 고객의 연금 현황을 점검하고 생애 주기에 맞는 방향을 안내한다. ▲연금 수령 시기와 방식에 대한 상담 ▲세제 혜택 및 제도에 대한 설명 ▲고객 연금 자산 구조 점검 및 관리 포인트 상담 등을 지원한다. /신하은 기자